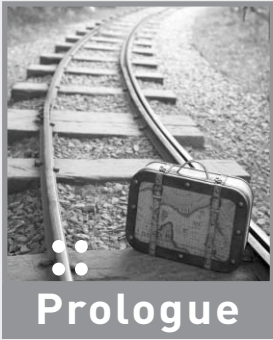




READING LOGICS

kimjeongho bilingual

논리적 독해



Prologue

“연구실에서 제안하는 논리 공부법”

1 들어가며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과목”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어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지식이 필요한데, 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내는 연습은 [BTB-AB-독해혁명-동사특강] 이 4개의 강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즉,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내는 연습은 이미 충분히 한 셈이다. 앞으로 여태까지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분명 AB라는 정도를 따라서 열심히 해왔건만 10% 부족하다. 우리가 정말로 외국어영역의 만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두뇌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논리적 글 읽기” 이다. 절대실력이 아니라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는 1~3등급의 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문제를 더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따라 자신이 함께할 대학이 갈리는 수능시험에서, 아무생각 없이 글을 읽어나간다면,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 논리적으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분명 답을 추리하여 맞았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어와 문장구조, 그리고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생각한다면, 수능이 오기 전 한번쯤은 이러한 논리적 독해 강좌를 듣고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집에서 단순히 양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 독해방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구문과 독해라는 양 측면에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만점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으니, 이러한 논리 독해를 단순한 스킬강좌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널리 잘못 퍼져 있는 문제풀이 요령, 즉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주제 문장이고 따라서 그 문장만

읽고 답을 풀고 넘어간다거나, 역접의 접속사라든지 이러한 지문 내에서의 개개의 사용 단어에 기반을 두어 문제를 풀게끔 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글이란 것은 “기본목적”을 두고 쓰여 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글의 기본 목적을 생각지 않고, 단순히 문제 유형마다, 혹은 단어의 쓰임마다를 기준으로 이 경우에 어느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점쟁이식의 예언의 스킬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독해능력이다. 글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논리적 독해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힘이다. 특히, 우리는 글을 뒤에서부터 읽지도, 중간에서부터 읽지도 않는다. 오직 앞에서부터 즉 서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에 따라 글의 중반부 및 후반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며 이 글의 전개방식을 뼈대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논리 독해이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스킬이 아닌 “논리 독”인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글을 읽는 이에게 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해야 한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글쓴이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는 이가 바로 수능시험 만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Reading

Logics

2 논리 전개방식

Reading logics는 글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며 쓰일 수 있는 최상한선의 분류로 글의 전개방식을 나누고 있다. 특히 서두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본론과 결론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분류함으로써, 크게는 5개, 작게는 1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서두에 올 수 있는 주요한 구조를 살펴보자면 [통념의 제시], [문제점 제시], [논제 제시], [주장 제시], [구체적 사례 및 실험 제시] 이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보기로 하자

가. 통념의 제시 | 어떠한 사회는 누적된 경험 법칙으로 사회 일반이 옳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옳지만은 않은 통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은 각각 그 뒤에서 [사과의 전환]이나 [비판], [반론] 등을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 어차피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깨어지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에, 서론부에서 통념을 제시 했다면, 본론과 결론에서는 “사과의 전환”이나 “비판”, “반론” 등이 실릴 수 있으며 이는 그 통념을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통념이 제시된 경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사과의 전환”, “비판”, “반론” 등에 포진하여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통념이 제시되었다면 이처럼 사과의 전환이나 비판 반론 등이 제기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글을 읽는 것이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글의 뒤를 주의하여 읽다가 사과의 전환이나 비판, 반론 등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 했다면, 그 뒷부분의 내용은 간단히 주어, 동사, 후치수식, 타동사에만 주의하면서 글을 빠르게 읽어나가서 역접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지만 확인하자.

나. 문제점 제시 |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기위해 처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거나, 해결해가는 방식의 서술방식이 있다. 이 경우 서두에서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해결책이 나오는지 아니면, 단순히 문제점만 제기하고 비판하고 끝나는 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비판만 있다면 문제점 자체가, 반론이 있다면 반론 자체에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바가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렇게 글을 읽어서 반론을 발견하였다면, 주어, 동사, 후치수식, 타동사에만 주의하면서 글을 빠르게 읽어나가서 혹시나 역접이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지만 확인하자.

다. **논제 제시** |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고 싶거나, 객관적인 설명, 혹은 부딪히는 의견을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서두에서 꺼내는 서술방식이 “논제제시”이다. 즉, 서두에서 객관적으로 논제만을 제시하고, 본문이나 결론부에서 논제와 관련한 설명을 이어나가거나, 견해 혹은 주장을 제시하고 또는 논제와 관련하여 부딪히는 여러개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한다. 이처럼 객관적인 논제가 제시되는 경우 그 뒤에는 치우침 없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오거나 논제의 내용을 비교하거나 하는 다양한 서술 방식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술방식이 서두에 사용된 경우 지문을 끝까지 조심스레 읽어야 한다.

라. **주장 제시** | 처음부터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 지문이 짧은 글에서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생뚱맞게 주장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다만, 원하는 바를 미리 밝히기 좋아하는 서구식 관념이나, 혹은 지문의 길이 짧음으로 인한 압박으로 글의 서두에 주장이 먼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나가 계속하여 주장할지, 아니면 주장에 비판점을 인식하고 보완해 내갈지를 잘 구분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서두에 추상적인 주장이 제시되며, 구체적인 예시가 올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주장이 제시되면, 그에 대한 근거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특히, 추상적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전개 시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추상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글의 전개방식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높으므로 주의하자.

마. **구체적 사례 및 실험 제시**다음으로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중 하나인 “구체적 사례나 실험의 제시”이다. 위에서 설명한 4개의 서술방식 유형과 달리 이 유형은 글이 보통 어떠한 사례나 사건의 구체적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 또는 어떠한 실험의 진행상황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나 실험결과가 제시되면, 단순히 여기서 글이 끝나기보다는 이로부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일반법칙이나, 교훈, 견해나 주장 등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좋은 서술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방식이 사용된 글이 주제나 요지 찾기 등의 간단한 유형과 결합되면 서두와 본문부분은 주어, 동사, 후치수식어, 타동사 등을 이용해서 간단한 구조분석만하면서 빠르게 읽어나가



Reading

Logics

되, 결론 부분에 주의하면서 읽어야만 한다. 반면 이러한 서술방식의 글이 빈칸추론 등의 유형과 결합되면, 구체적 사례나 실험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반드시 도출해야 할 것이다.

3 강의 구성

Reading Logics란 강의는 결국 언어영역에서도 배우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영어지문과 함께 배워나가는 강의이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며 오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이 강의에서는 오로지 선생님께서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복해 나가는지, 그러한 논리방식을 배우고, 그러한 방식을 스스로 해설에 나온 도표처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칼분석을 계속하다보면 독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듯이, 이러한 논리독해도 계속 연습하다보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칼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강의보다는 혼자서 얼마나 연습해보느냐에 따라 달렸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많은 지문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 보다, 적은 양의 질문을 얼마나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해 나가느냐에 생사가 걸렸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강좌는 철저한 논리독해 강좌이기 때문에 주요 구문이라던지, 단어와 관련한 설명은 최대한 줄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도 이 점에 주의하여 이 강의의 본질을 잊고 칼분석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문의 논리적 분석에도 힘을 쓸 것을 당부한다.

4 교재 특징

위에서 말한대로 이 강의는 철저한 논리 독해를 표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독해를 하기보다는 예시문제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장이 아니라면 분석역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는 구문분석에 약한 3~4등급 학생들을 위한, [주요구문분석] 코너와 [단어 학습] 코너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이 3~4등급에 속한다면 먼저 글을 읽기 전에 교재에 제시된 주요구문분석과 단어학습을 먼저 하고나서 지문의 논리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강의와

교재의 가장 큰 목표가 논리독해의 상세한 방법 제시와, 연습에 있기 때문에, 이 교재는 단순히 강의용 문제만이 아니라, 혼자서 직접 비슷한 서술방식 유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복습문제를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나서 바로바로 해당 유형과 비슷한 서술방식의 글을 스스로 분석해보기 바란다. 그런데 이 경우 학생이 스스로 분석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논리 구조 분석내용과 함께 논리사고과정을 포인트를 짚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설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논리 분석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해설을 따라서 자신이 올바른 사고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5 맺으며....

이상 이 강의와 교재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조언을 마쳤다. 물론 각 챕터마다 예제와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 글을 읽고 여기서 제시한 공부방법대로 차근 차근 공부해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시중에 잘못 알려진 한 문장만 읽고 답을 찾아내는식의 꼼수독해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논리독해의 길에 접어들기를 바란다. 다만, 누누이 말하듯이 이 논리독해 강의는 영양제와 같은 것이다. 시험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컨디션이 중요하다하여 공부는 하지 않고 약만 먹고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제대로된 문장 분석과 암기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리 약을 많이 복용해도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라.

P.S → 약만 너무 많이 먹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CONTENTS

Chapter 01 통념 제시

| | |
|-----------------|----|
| 1. 통념과 사고의 전환 | 19 |
| 2. 통념의 비판 | 35 |
| 3. 통념에 대한 반론 제시 | 47 |

Chapter 02 문제점 제시

| | |
|-------------|----|
| 1. 단순 설명 비판 | 81 |
| 2. 해결책 제시 | 93 |

Chapter 03 논제 제시

| | |
|--------------|-----|
| 1. 논제 설명(분류) | 119 |
| 2. 견해, 주장 제시 | 159 |
| 3. 다른 견해 제시 | 191 |

Chapter 04 주장 제시

| | |
|---------------|-----|
| 1. 구체적 주장의 근거 | 207 |
| 2. 추상적 주장의 예시 | 233 |
| 3. 여러개의 주장 | 265 |

Chapter 05 구체적 사례 실험 제시

| | |
|--------------|-----|
| 1. 일반 법칙 도출 | 273 |
| 2. 교훈 도출 | 293 |
| 3. 견해, 주장 제시 | 311 |

Kimjeongho biling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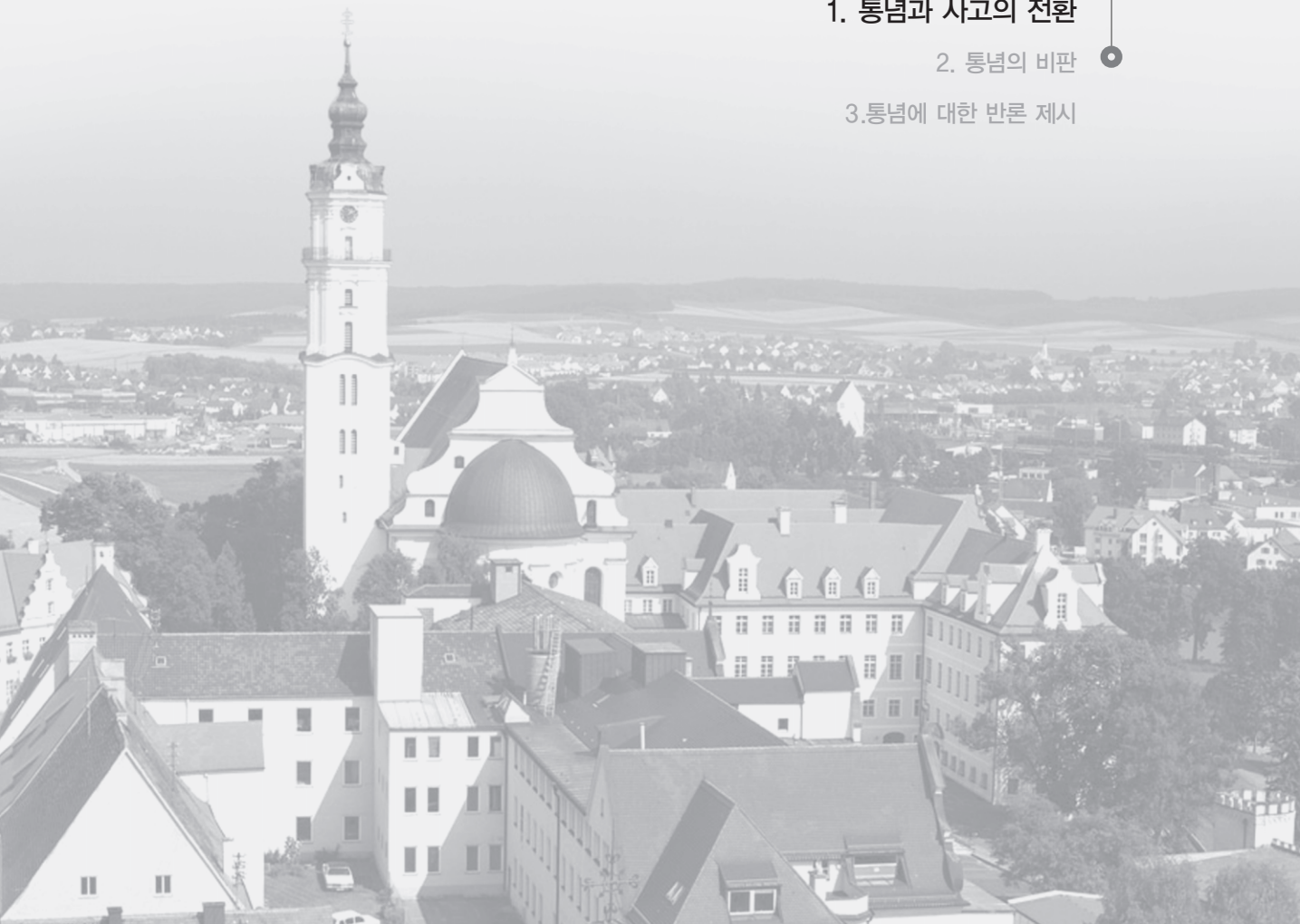


Reading Logics

Chapter 01

통념 제시

1. 통념과 사고의 전환
2. 통념의 비판
3. 통념에 대한 반론 제시



Vocabulary

- practical stimulations
실제상황
- vagueness
모호함, 애매함
- clarity 명확함
- specificity
구체화함, 특이함
- detail 세부 묘사
- assignment
임무, 할당량
- fundamentally
본질적으로
- somewhat
어느 정도, 약간

기출 예제 1

다음 중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practical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room for error, we have learned to avoid vagueness in communication. A fire chief, for example, needs to issue his orders with absolute clarity. In imaginative situations, however, there is the danger that too much specificity can limit your imagination. Let's suppose that the same fire chief has asked you to paint a picture on the side of his firehouse. If he tells you what he wants it to look like right down to the last detail, he has not given you any room for your imagination. However, if the assignment were stated somewhat vaguely, then you would have more room to think and be more creative.

- ① 소방관들은 업무수행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② 상사는 부하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정확한 정보 해석을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대화에서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소 모호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 구문 분석

1. practical situations where S + V : where 절이 앞의 situations를 수식
2. the danger that S + V : 위험의 내용을 동격절로 설명
3. ask you to paint~ : -에게 -할 것을 요구하다
4. tell you what he wants it to look like : tell의 직접목적어가 what 이하, [그가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길 원하는지]
5. if the assignment were stated~, they you would have~ : 현재반대가정 + 현대반대결과

일반적 통념과 상황 예시

In practical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room for error, we have learned to avoid vagueness in communication. A fire chief, for example, needs to issue his orders with absolute clarity.



사고의 전환

In imaginative situations, however, there is the danger that too much specificity can limit your imagination.



사고의 전환의 상황 가정

Let's suppose that the same fire chief has asked you to paint a picture on the side of his firehouse. If he tells you what he wants it to look like right down to the last detail, he has not given you any room for your imagination. However, if the assignment were stated somewhat vaguely, then you would have more room to think and be more creative.

일반적 통념과 상황 예시

우리는, 실수를 위한 여유가 존재치 않는 실제 상황에서, 대화할 때 모호함을 피해야 한다고 배웠다. 예를 들어, 소방대장은 절대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내려야만 한다.



사고의 전환

그러나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구체화는 당신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사고의 전환의 상황 가정

그 동일한 소방대장이 당신에게 소방서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가 그것이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 지까지의 자세한 설명을 당신에게 했다면,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상상력을 위한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그 과제가 다소 모호하게 설명된다면, 당신은 생각할 더 많은 여지를 갖게 되고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바로 “이 글의 요지” 즉,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짚어 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글의 서두를 먼저 살펴보자. 우선 서두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떠한 생각과 함께 그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흔히 “통념”이라고 지칭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의 앞부분에 통념이 제시되면, “비판”이나, “반론”이 제기되는 것이 글의 합당한 서술 방식이다. 물론, 단순히 통념만을 비판적 어조로 제시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만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방식은 논리적인 글 전개방식에서 벗어난 것이거나, 난도질당한 좋지 못한 글이므로 이러한 예까지 생각하며 글을 읽을 필요 없고, 이 글의 어디쯤에서 사고의 전환이나, 비판, 반론 등이 제기될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글의 형식의 경우 보통 비판이나 반론 부분이 주장이나, 주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 글의 어디쯤부터 사고의 전환 혹은 비판, 반론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가되, 이 글은 요지를 찾는 문제이므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사고의 전환이 답이 될 것이고, 반론이 제기된다면 그 반론이 답이 될 것이다. 다만, 비판의 경우 비판 후에 반론이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을 보자면, 세 번째 문장인 “In imaginative situations, however, there is the danger that too much specificity can limit your imagination.” 이 문장부터 앞부분의 내용과는 다른 사고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혹시나 하는 우려로 뒤의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접속사나 주어, 동사, 후치수식위주로 살펴보면 네 번째 문장부터는 사고의 전환과 관련된 가정된 상황으로 예시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답은 사고의 전환 내용을 읽고 예상했던 것처럼 5번의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소 모호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가 된다.

기출 예제 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now that the economy is characterized more b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an by hard goods, geographical centrality has been replaced by attempts to create a sense of cultural centrality.

Now, as always, cities are desperate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y lie at the center of something or other. (①) This idea of centrality may be locational, namely that a city lies at the geographical center of England, Europe, and so on. (②) This draws on a well-established notion that geographical centrality makes a place more accessible, easing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③) Cultural centrality usually demonstrates itself as a cry that a city is at the center of the action. (④) This means that the city has an abundance of cultural activities, such as restaurants, theater, ballet, music, sport, and scenery. (⑤) The suggestion is that people will want for nothing in this city.

Vocabulary

- now that ~이기 때문에
- be characterized 특성화 되다
- centrality 중심성, 구심성
- impression 인상, 감명, 생각
- namely that S+V 다시 말하자면
- notion 개념
- demonstrate A as B A를 B로써 보여주다
- abundance 풍부함
- such as A A와 같은
- want for A A를 필요로 하다
- draw on 근원을 찾다
- want for 부족하다

기출 예제 2

1. cities are desperate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S + V : impression 과 동격인 that 절
2. a well-established notion that geographical centrality makes~ : notion 과 동격인 that 절

통념의 제시

Now, as always, cities are desperate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y lie at the center of something or other. (①) This idea of centrality may be locational, namely that a city lies at the geographical center of England, Europe, and so on.

통념의 근거 제시

(②) This draws on a well-established notion that geographical centrality makes a place more accessible, easing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사고의 전환

(③ However, now that the economy is characterized more b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an by hard goods, geographical centrality has been replaced by attempts to create a sense of cultural centrality.)

부연설명 및 예시

Cultural centrality usually demonstrates itself as a cry that a city is at the center of the action. (④) This means that the city has an abundance of cultural activities, such as restaurants, theater, ballet, music, sport, and scenery. (⑤) The suggestion is that people will want for nothing in this city.

한글해석

통념의 제시 | 항상 그랬듯이 요즘 도시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이나 다른 것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열망을 품고 있다. (①) 이런 중심성에 대한 생각은 위치적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도시들이 영국이나, 유럽 등지의 지리적 중심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 말이다.

통념의 근거 제시 | (②) 이러한 생각은 지리적 중심성이 한 지역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소통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게 만든다는 확립된 개념에서 근원을 찾는다.

사고의 전환 | (③) 그러나 경제가 내구성 있는 소비재 보다는 정보의 교환에 의해 더욱 특화되어졌기 때문에, 지역적 중심성은 문화적 중심성이라는 의식을 만들기 위한 열망으로 대체되었다.

부연설명 및 예시 | 문화적 중심성은 대개 그 자신을 한 도시가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외침으로 표현한다. (④) 이것은 그 도시가 풍부한 문화적 활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 영화관, 무용극, 음악, 스포츠 그리고 연극 등과 같은 것 말한다. (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설

이 글은 서두에서 중심성에 관한 이야기와 기존에 있었던 도시들이 가졌던 “지역적 중심성”이 최고라는 생각을 통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두의 내용을 보고, 이 글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지, 비판이나 반론이 이루어질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통념적인 생각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아직은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인 “cultural centrality usually demonstrates itself as a cry that a city is at the center of the action” 이 문장에서 갑자기 앞에서 나온 통념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 “문화적 중심성”이라는 논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앞부분에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니 역접으로 시작하여 사고의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품고 있으므로,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후에 나머지 지문을 주어, 동사, 후치수식어를 위주로 빠르게 읽게 되면 나머지 부분 역시 “문화적 중심성”에 대한 부연설명만 누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된다.

강의 예제 1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pread of prosperity, the single-family home, the invention of television and computers have all made it possible for us to live private lives unimaginable to previous generations. We no longer live in close quarters with our neighbors, we can move about without crowding into buses or trains; we do not have to go to theaters or share our tastes with our neighbors. However, the same technologies that help separate us from the crowds als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and record our behaviors. Although fewer people have intimate knowledge of our lives, many people — mostly unknown to us — know something about us. The very technology that was supposed to free us from mass society has turned out to be as much a fishbowl as an information highway. In modern society, we have discovered that _____.

Vocabulary

- prosperity 번영, 부유함
- single-family home 1인 가구
- quarter 지방, 지역
- tastes 취향
-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 move about 돌아다니다
- have intimate knowledge of ~을 잘 알고 있다
- mass society 대중 사회
- modern society 현대 사회
- live A A한 삶을 살다
- A turn out B A가 B임이 입증되다.

- ① people cannot use public transportation because of crowding
- ② technology makes us independent from natural environments
- ③ more people become indifferent to the spread of prosperity
- ④ cooperating with people leads to wrong conclusions
- ⑤ being free often means also being naked

구분 구별 문제

1. made it possible for us to live private lives unimaginable to previous generations : make it O.C to / unimaginable 이하는 앞의 lives를 수식
2. the same technologies that help separate us from the crowds : that은 관계사 주격 / help 뒤에는 to 생략되어 있음
3. The very technology (that was supposed to free us from mass society) has turned out to be as much a fishbowl as an information highway (has turned out to be) : turn out to R : -하는 것으로 판명되다